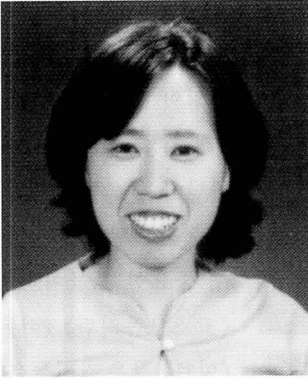


자연을 닮은 사람, 자연을 닮은 책

이지희 | 다른세상 편집장



“외국에 비하면 아직도 생태 분야의 책들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많이 부족하다. 그만큼 발전의 여지가 많으니 더 깊이, 더 넓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고, 밀고 나갈 만하지 않은가.”

자연생태 분야의 책을 만들다 보면 잘 씌어진 에세이식의 인문서나 예술서와는 또 다른 감동을 받는다. 이 세상에 어떻게 이토록 다양한 생명체들이 존재하는지 그 생명체의 신비에 놀라고, 손톱만한 나비 한 마리, 가녀린 꽃 한 송이에도 인간처럼 치열한 삶의 방식이 들어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리고 막연하게 알고 있던 ‘인간은 그들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절실하게 다가온다. 사진과 생태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만들어가는 즐거움은 ‘생명’이란 것을 자주 생각하는 데서 온다. 그만큼 자연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서 좋다.

생명의 소중함 생생히 전달하려 노력해

이미 자연도감이 여러 종 나와 있는데도 물고기니 풀꽃이니 나무니 하는 책들을 시리즈로 내려고 한 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좀더 생생하

게 전달하고 싶어서다. 이야기체로 읽기 쉽고, 현장감 있는 사진과 디자인 요소를 가미해 화려하게 편집한다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이 책들의 공통 주제는 ‘자연을 닮은 사람이 아름답다’다. 제목을 붙일 때도 그 동식물들이 자유롭고 활기차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는다. ‘춤추는 물고기’ ‘피어라 풀꽃’ ‘숫아라 나무야’ ‘날아라 새들아’ 등이 그것인데, 무슨 제목이 그러냐고 웃는 사람도 봤고 자연 쪽 제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었다. 어쨌든 자연 쪽에서 ‘튀는’ 제목임에는 틀림없으므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는 점에서 성공(?)했다고 스스로 자부하며 계속 밀고 나가리라는 다짐을 하기도 한다. 이 시리즈는 최근에 《우리바다 해양생물》을 출간함으로써 10권을 넘게 됐다.

이 책들을 만들면서 어려웠던 점 가운데 하나는 글을 다듬는 것이다. 자연 분야 학자들의 딱딱한 글을 시리즈 기획의도에 따라 부드럽게 고치려니, 이젠 보통 일이 아닐 뿐 아니라 고치려면 일단 연구(?)를 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다간 내용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책 한권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무작정 늘어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새로운 생명체를 많이 알아간다는 것이다. 편집이 끝날 때까지 지은이에게 요구하고 요구 받고, 질문하고 해결하는 일을 수없이 한다는 것도 이런 책을 만드는 어려움이자 즐거움이랄 수 있겠다.

이런 저런 어려움은 모두 책 만드는 정성이라 생각하면 그만이지만, 이 분야의 독자가 적은 걸 생각하면 은근히 화가 난다. 이삼백 컷의 사진이 올 컬러로 들어가고 종이질도 좋아야 하기 때문에 웬만큼은 나가줘야 수지가 맞

을 텐데, 이 분야 책을 내는 출판사들의 고민은 모두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도 특별한 기획의 자연 책들이 간간히 나오는 걸 보면 다짐이 새로워진다. 독자가 적으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가치 있을 뿐더러 꼭 필요하니 독자를 끌어들이려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고쳐먹는다. 외국에 비하면 아직도 이 분야의 책들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많이 부족하다. 그만큼 발전의 여지가 많으니 더 깊이, 더 넓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고, 밀고 나갈 만하지 않은가.

자연 분야 학자들도 인문적 소양 두루 갖춰야

많은 자연생태 분야 저자들을 만나면서 정말 감탄스러운 분이 한명 있다. 환경생 나무와 같이하신 분인데, 이분은 나무 한종 한종마다의 느낌을 누구보다도 잘 표현한다. 그분의 책 《숫아라 나무야》(임경빈)를 만들면서 이젠 나무 설명이 아니라 한 편의 잘 씌어진 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백나무를 이야기하면서 “차가운 눈이 내리는데도 동백꽃이 붉고 깨끗하게 피어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무서울 정도의 열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열정이 줄기를 타고 올라가 끝내는 가지 끝 쪽에서 폭발하여 꽃을 피운 것이다”는 표현이나, “신갈나무는 산악성의 나무이다. 찬 산바람에 우르르 떨고서 있는 신갈나무 숲은 가을단풍의 소용돌이를 만든다. 떨어지는 도토리를 모으는 다람쥐도 신갈나무 잎 단풍의 노래에 신바람을 느낀다”며 신갈나무를 예찬한 부분은 나무에 대한 사랑을 넘어 대상과 교감하는 저자의 특별한 감성이 아니고는 나올 수 없는 표현일 것이다.

이 분처럼 자연생태 분야의 저자들도 문학과 문화, 예술 등의 다른 분야를 폭넓게 끌어안을 수 있는 시각을 지녀야 한다. 그렇게 학과간 벽을 헐고 통합적 사고를 할 때 우리의 자연생태 분야 책들도 질적으로 더 나아질 것이다. ■

이지희씨는 10여년 동안 출판계에 몸담으면서 인문, 자연 분야 책을 만들어 왔다. 현재 도서출판 다른세상의 편집장으로 재직중이다.